

‘친환경 기술’ 엔진 단 조선업계… 후판인상·노조갈등에 배격

수주 책꽂이에도 경영정상화 가시밭 하반기 후판 인상시 손실확대 불가피 노조 입단협 갈등심화도 불안요소

국내 조선업계가 대호황기를 뜻하는 슈퍼사이클을 맞았지만 함박웃음을 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3사가 장기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왔지만 올 하반기 후판(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 가격 인상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여기에 과거 수주 절벽으로 인해 경영 정상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갈등으로 노조가 전면파업을 예고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월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는 친환경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수주 물량을 확보하며 순항중이다.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3개사는 올해 상반기(1~6월) 2021년 합계 수주목표 317억달러 중 79.5%인 252억달러를 수주했다. 각사별로 나눠보면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한국조선해양은 상반기 138억달러를 수주하며 올해 목표 149억달러에 92%를 달성했다. 반면 만에 연간 수주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대우조선해양은 55억달러의 수주성적을 거두며 올해 목표 77억달러의 약 71.4%를 채웠다. 삼성중공업 역시 수주 목표 91억달러 중 59억달러를 채워 64.8%를 확보한 상태다.

이같은 성과는 글로벌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연료전지로 운항 가능한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친환경 선박 연료인 메탄올 추진 엔진을 탑재한 선박을 건조한다. 대우조선해양은 한국형 친환경 선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환경 기술력을 앞세워 수주 흥행 물이에 나서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인

상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노조의 압박은 실적 개선에 발목을 잡는다.

국내 철강업계는 철광석 가격 급등과 시장 가격 상승으로 하반기 후판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국내 후판 유통가는 올해 초 톤당 69만원에서 지난 5월 130만원으로 90% 가량 상승했다. 결국 조선용 후판 역시 40%이상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때문에 조선업계는 원가의 20%가량을 차지하는 후판 비용이 상승할 경우 수익성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국내 조선사의 후판 수요가 약 230만톤으로 추정되는데, 후판가가 톤당 10만원 오를 경우 2300억원, 20만원 오를 경우 4600억원의 비용이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발생한다.

현재 조선업계는 대호황기를 맞아 수주 책꽂이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삼성중공업은 영업손실 5068억원, 대우조선해양은 영업손실 212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과

후판 등 강재 가격 급등으로 손실폭이 확대됐다. 한국조선해양은 전년동기대비 44.5% 감소한 675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쳤다. 수주 절벽이던 2019년 실적이 올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침체에 시달려온 조선업계가 겨우 살아나는 분위기에서 입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악재다.

입단협이 3년째 타결되지 않은 현대중공업 노조는 6일부터 9일까지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2020년 1월 현 노조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부분파업은 있었지만, 전면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 수주 증가로 조선업계가 대호황기를 맞았지만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는 2~3년 이후부터다”라며 “원자재 가격 인상은 조선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간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전면 파업을 진행할 경우 오랜만에 찾아온 수주 상승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미래신사업 분야 사내 스타트업 3곳 분사

디폰 ‘투과율 가변 윈도우 필름’ 제작
오토델 고해상도 라이더 센서 개발
데이터몬드 고객참여형 포인트 플랫폼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단순히 자동차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구조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사업 영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디폰과 오토델, 데이터몬드 등 미래 신사업 분야 사내 스타트업 3곳을 분사했다고 4일 밝혔다.

디폰은 창문에 투과되는 햇빛의 양을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는 ‘투과율 가변 윈도우 필름’을 개발했다. 현대차 독자 기술로 제작된 이 필름은 차량뿐 아니라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차광방식과 비교해 유해 자

외선 차단과 냉·난방 에너지 절감 등이 특징이다.

오토델은 자율주행용 고해상도 라이더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 가격이 비싸고 차량 외부에 돌출형으로 탑재되는 시판 제품과 달리, 오토델의 라이더는 소형이면서 주변 환경을 더 정밀하게 인식하는 데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차량 장착도 용이하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오토델은 차량 적용을 위해 가혹한 조건에서 검증을 마친 후 완성차사와 협력사에 제품을 제공하고 양산을 준비할 계획이다.

데이터몬드는 고객 참여형 포인트 플랫폼인 ‘포인트 몬스터’로 쉽고 편리한 포인트 사용·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사용 후가맹’ 방식으로 가맹점 등록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고객 제안을 통해 1분 이내에 제휴할 수 있다.

이들 3곳은 자동차 관련 사업뿐 아니라 시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신사업 영역으로 진출해 현대차그룹과 다양한 업무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2000년부터 사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벤처플라자’를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 명칭을 ‘제로원 컴퍼니빌더’로 바꾸고 기존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과 통합해 자동차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선발 범위를 넓혔다.

선발 후 1년간 최대 3억원의 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이후 분사 또는 사내 사업화를 결정한다. 분사 후 3년까지 재입사 기회도 준다.

현대차그룹은 사내 스타트업 분사 후에도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당사 오

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인 제로원을 통해 사업 개발 및 확장, 운용 자금 마련,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58개 팀을 선발·육성했으며 올해까지 모두 25개의 기업을 분사시켰다. 작년에는 사내 스타트업 10곳이 독립기업으로 출범했고, 앞으로도 매년 10개 안팎의 사내벤처 기업을 육성·분사시킬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고객에게 끊임 없는 이동의 자유로움과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경험을 모두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인 오픈이노베이션 활동과 함께 임직원의 혁신적,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 VSA 사용 중단 권고

美 ‘카세야’ 랜섬웨어 공격받아

미국 IT 관리용 솔루션 제공업체인 ‘카세야(Kaseya)’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번 공격의 배후로는 러시아와 연관된 해킹그룹 레빌(REvil)이 지목되고 있다. 레빌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비용을 줄 때까지 피해자의 컴퓨터를 잠그는 악성 소프트웨어 랜섬웨어의 공급업체로 유명하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다.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 사용하고 싶다면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레빌이 진행한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공격은 역대 최대 규모로 보인다. 특히 IT 솔루션 제공 업체인 카세야는 주요 제품인 VSA(IT 관리용 플랫폼)에서 랜섬웨어 유포 경로로 악용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VSA가 대기업이나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관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보안업체인 헛트레스 랩스는 카세야가 당한 공격으로 피해를 본 회사가 1000곳을 넘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이버 보안 회사인 엠시소프트(Emissoft)의 위협분석가 브렛 칼로우는 “이번 카세야 사건은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 중 가장 크고 가장 중대한 사건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카세야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VSA 사용 중단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강준혁 수습기자 junhyuk@

삼성 등 대기업 ‘국가발전 공모전’ 참여… 응모건수 400건 육박

공모시작 후 일 평균 20여건 접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취임 이후 첫 프로젝트로 시작한 ‘국가발전 공모전’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 현대차, SK, 롯데,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들도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혁신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4일 민간 주도의 건강하고 다양한 혁신을 일으키자는 취지의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의 응모 건수가 40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중순 접수 시작 후 하루 평균 20여건이 접수된 셈이다.

공모전에는 인공지능(AI), 메타버

스, 로봇, 그린 에너지 등 신기술을 통해 청년세대 경제적 지원, 재난·안전, 친환경, 규제이슈 등 우리사회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디어가 줄을 이었다.

주제별로는 ‘친환경’ 관련 아이디어가 18%로 가장 많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택배 포장, 배달용기를 줄이는 방법과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됐다. 다음으로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17%),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11%), ‘지역 균형발전’(10%), ‘저출산·고령화’(9%), ‘소상공인 지원’(5%) 순이었다.

응모 부문별로는 기업이 전체의 37%, 대학 관계자(교수·학생 등) 6%로

나타났고, 나머지 57%는 일반 부문으로 응모했다. 실제로, 기업은 스타트업의 응모가 전체의 60%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삼성, 현대차, SK, 롯데, 포스코, 한화 등의 응모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별로는 고려대, 숭실대, 국민대 등의 응모가 줄을 이었다.

대한상의 측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아이디어들이 주로 사회의 구조적 문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숙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해법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통한 해결, 잠재적 수요자-공급자를 연결시키는 플랫폼, 다양한 혁신을 일어날 수 있는 캠페인의 진행, 정부지원 사각을 해결하는 소셜벤처 등



지난달 7일 오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상금은 총 2억 2900만원이며 대상은 1억 원에 지분까지 더해질 예정이다.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경우 수상자는 최대 4.5%의 지분을 부여받는다.

/양성운 기자